

터키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0. 3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8
IV. 국제신인도	12
V. 종합의견	14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I. 일반개황

면적	780천 km ²	G D P	6,300 억 달러(2009년)
인구	72.60백만명(2009년)	1 인 당 GDP	8,678 달러(2009년)
정치체제	의원내각제	통화단위	신터키리라 (Yeni Turkish Lira)
대외정책	친서방 및 친아랍의 균형외교	환율(달러당)	1.55(2009년 평균)

-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의 접경지역인 흑해, 마르마라해, 에게해를 연결하는 보스포루스 해협과 다다넬즈 해협을 아우르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3.5배에 달하는 국토면적과 7,260만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음.
- 터키는 2004년부터 EU 가입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후 2015년 EU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사이프러스 문제 및 경제개혁 부진 등의 사유로 EU 가입은 아직 요원한 상황임.
- 최근 터키는 지정학적 중요성, 시장잠재력, 거대시장 인접성 등 유망시장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어 post-BRICs군에 빠짐없이 언급되는 국가이고, 우리나라와는 2010년 4월부터 FTA 협상을 본격 추진할 계획임.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e
경제성장률	8.3	6.9	4.5	2.3	-5.3
재정수지 / GDP	-1.3	-0.6	-1.6	-1.8	-5.3
소비자물가상승률	10.1	10.5	8.8	10.4	6.3

자료: IMF, EIU.

□ 경제성장률은 2009년 마이너스 성장에서 2010년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 예상

- IMF 지원 프로그램에 따른 각종 경제개혁 과제의 착실한 이행으로 터키는 2004~07년 평균 7.4%대의 고성장세를 기록함.
- 2008년에는 주요 수출시장인 유로존의 경기침체, 내수 및 투자 위축 등으로 경제성장률은 2.3%를 기록하였으며, 2009년에는 유럽지역 전반에 걸친 경기침체, FDI 유입 감소, 여신 축소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5.3%로 크게 위축된 것으로 추정됨.
- 2009년 4분기부터 산업생산 증가 및 투자심리 개선으로 경제상황이 호전되었고 2010년 들어서는 국내외 경제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연중 경제성장률은 플러스 성장(3%대 예상)으로 반전될 것으로 전망됨.

□ 2010년 총선 이전에는 긴축재정정책 시행 가능성 낮음.

- 터키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친 총선 및 지방선거를 통해 선심성 재정지출을 확대해 왔는데, 2007년에는 부가가치세율 인하(18→8%), 조기총선 관련 재정지출 등으로 GDP 대비 1.6%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였고, 2009년에는 지방선거 관련 재정지출 지속,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실업률 상승에 따른 사회보장 관련 지출증가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지출 증가로 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5.3%로 크게 악화됨.

- 터키 정부는 2010년부터 휘발유, 담배, 주류 등 품목에 대한 간접세 비율을 높이는 등 세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재정지출 증가율(전년 대비 7% 증가)을 재정수입 증가율(전년 대비 10% 증가)보다 낮게 책정하여 2010년 터키의 재정수지 적자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세 지속

- 터키 경제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항상 거론되었던 사안이었으며, 두 자리수의 고인플레이션이 경제성장의 주요 장애요인이 되어 왔음.
- 2008년에는 식료품(음료), 에너지(원유, 전기) 및 교통비 등 공급측면의 가격 급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이 진정되지 않았으며, 2009년에는 연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원자재 가격의 하향 안정세 및 국내외 수요 감소로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7.5% 보다 낮은 6.3%로 안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2010년에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간접세율 인상 및 내수 회복 등으로 물가는 상승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구조 · 정책

[구조적 취약성]

□ 경제 구조적 취약성 개선

- 터키는 해외차입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외환 및 금융 시장이 불안한 양상을 보였던 대표적인 신흥투자시장이었으나, 2008년 하반기 이후 금융위기 상황을 비교적 잘 극복한 국가로 평가됨.
- 터키 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IMF 대기성차관을 빈번히 지원받았는데, 2008년 5월 IMF 대기성차관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는 과거와는 달리 IMF에 추가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고 국제적인 신용도평가 기관 등도 터키의 경제 체질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또한, 2009년 글로벌경쟁력지수(WEF 발표) 평가에서도 터키의 제도(정책) 등이 다소 악화된 점을 제외하고는 기업발전 수준 등 대부분의 영역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됨.

□ IMF, 터키에 대한 대기성차관 추가지원 불필요 시사

- 2010년 3월 9일, 터키 정부는 경제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지 않은 한 금년 7월 총선 이전에는 IMF 차관을 적극적으로 지원받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데 이어 3월 10일에는 IMF가 터키에 대한 대기성차관 추가지원 협상을 당분간 하지 않을 것임을 발표함. 이 같은 배경에는 터키 경제펀더멘털이 개선되어 IMF 지원 없이도 터키가 최근의 경제상황을 잘 극복한 국가로 평가한 데서 비롯됨.
- 터키는 2008년 5월 IMF 대기성차관(100억 달러) 프로그램의 종료 이후 IMF와 2~3년간 200억~250억 달러 규모의 차관 추가지원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지원조건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가 지연되어 왔음.

□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리라화 환율은 비교적 안정적 수준 유지

- 2008년 9월 미국발 금융위기로 신흥투자시장도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달러 대비 리라화 환율은 2008년 9월 1.24에서 12월 1.54, 2009년 3월 1.71 수준으로 일시 급등하는 등 리라화도 불안장세를 나타내었음. 그러나 2009년 상반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정화되면서 리라화도 다시 강세로 돌아서며 2009년 9월 말 이후 달러 대비 1.48 내외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성장 잠재력]

□ 풍부한 인적자원 보유 등의 안정적인 성장기반 형성

- 터키 인구는 2009년 기준 7,260만 명으로 유럽 국가 중에는 독일(8,280만) 다음으로 많은 인구를 보유한 내수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35세 이하의 젊은 계층이 전체의 63%로 노동력이 매우 풍부한 편임.
- 또한, 근로자의 숙련도, 교육 수준, 근로의욕 및 노동생산성 등 터키 노동 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 기업들의 평가도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경제상황 개선을 위한 중기경제계획(MTP) 운용

- 터키 정부는 경제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중기경제계획(MTP)을 매년 수정하여 발표하는 등 향후 3년간 취하게 될 구체적인 경제재정조치를 경제

정책에 반영하고 있어 국제사회로부터 시의 적절한 조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터키가 2005년 10월부터 EU 가입협상을 본격화하면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이 급증하였고 2007~13년 제9차 경제개발계획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G-20 국가로서 세계 경제에서도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음.

[정책성과]

□ 수출지향 대외경제정책 시행

- 1970년대 경제위기 이후 터키 정부는 수입대체 산업정책을 포기하는 대신, 당시 국제경제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대외 개방형 수출드라이브 산업정책을 지향하였음. 수출지향 전략을 심화, 발전시키기 위해 1980년대에는 무역자유화와 수출촉진 정책을 채택하고 법인세 감면, 세금 환급, 수출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조치를 취하였음.
- 1990년대 들어서는 국제경제 환경변화에 맞추어 WTO 및 여타 국제규율에 상응하도록 수출입제도를 정비하여 시행하였음. 2003년에도 수입제도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WTO 및 EU 관련 규정과 합치하는 수입제도 시행령을 발표한 바 있음.
 - 터키는 EU 가입을 위해 1996년 1월, EU와 관세동맹을 체결함으로써 수출입제도를 전반적으로 EU의 관련 규정에 맞추어 정비하기 시작함.
- 수출지향의 투자 증대, 외국자본과 기술의 유입 촉진을 목적으로 1985년 최초의 자유무역지대를 지정한 이후 총 21개의 자유무역지대가 운영되고 있음.

□ 2008년 10월 이후 기준금리 10.25% 포인트 인하

- 터키 중앙은행은 리라화 가치하락 및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 2006년 중반 이후 기준금리를 17.5% 수준에서 유지하여 왔으며, 2008년 10월까지 16.75%의 금리수준을 유지하였음.
- 이후 터키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기차입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였으며, 2009년 12월에는 역대 최저 수준인 6.5%로 인하함(2010년 3월 기준 6.5% 유지).

□ 2005년 이후 민영화 단계적 추진

- IMF는 2005년의 터키 경제위기 회복을 위한 방편으로 민영화를 터키 정부에 강력 권고하였으나 터키 정부는 민영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민영화 추진실적은 다소 저조한 편이었으나, 2005년 이후 국영 기업 민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주요 민영화 기업으로는 프랑스 Alcatel에 지분 40%를 매각한 Teletas(전력 업체), 이탈리아 Fiat에 지분 17%를 매각한 Tofas(자동차업체), 러시아 Tatneft 자회사인 Efremov Kautschuk에 지분 66%를 매각한 Tupras(정유 업체), 네덜란드 ING Bank에 매각된 Oyak Bank 등임.
- 2008년 주요 민영화 실적으로는 Socar-Turkcas-Injaz 컨소시엄 앞 Petkim (국영정유회사) 지분 51%(20.4억 달러) 및 Turk Telekom의 이스탄불 주식시장 기업공개(IPO)를 통한 15%(19.2억 달러) 지분 매각임.
- Turk Telekom은 2005년 11월, 사우디-레바논 계열의 통신회사인 Oger Telekom에 대하여 65.5억 달러의 지분(55%)을 매각함.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e
경 상 수 지	-22,137	-31,893	-37,697	-41,289	-13,854
경 상 수 지 / GDP	-4.6	-6.0	-5.8	-5.7	-2.2
상 품 수 지	-32,988	-40,941	-46,669	-52,844	-24,729
수 출	78,365	93,611	115,356	140,999	109,672
수 입	111,353	134,552	162,025	193,843	134,401
외 환 보 유 액	50,402	60,710	73,156	70,231	69,178
총 외 채 잔 액	169,269	207,773	251,477	278,326	275,613
총 외 채 잔 액 / GDP	35.1	41.9	40.7	40.6	42.5
D S R	38.0	32.9	32.6	30.1	28.3

자료: IMF, EIU

□ 경상수지 적자는 GDP 대비 2~3% 수준으로 개선

- 터키 경상수지는 상품수출에 비해 중간재 및 원자재 수입증가로 인해 만성적인 적자구조가 지속되었으며, 2008년에도 리라화 가치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부담, 외국인투자 관련 배당금 지급 등으로 GDP 대비 5.7%를 기록하였음.
-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국제무역 규모가 급격히 위축됨에 따라 터키의 수출입실적도 급감하였음. 상품수출이 감소하였으나 산업생산 감소로 인한 원부자재 수입 감소, 외국인투자 송금 감소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139억 달러로 2003년 이후 최저치)는 GDP 대비 2.3%로 오히려 개선되었으며, 2010년에는 내수 경기 회복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폭이 다소 증가하여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3% 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외환보유액은 관리 가능한 수준 유지

- 터키의 외환보유액은 2008년 말 702억 달러, 2009년 말 692억 달러에서 2010년 2월 말 677억 달러 수준을 기록하면서 큰 폭으로 변동하지 않은 가운데, 2009년 말 기준 월평균 수입 대비 외환보유액은 5.2개월 수준으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실적은 2006~08년 연평균 20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09년에는 76억 달러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추정되며, 터키 정부는 2010년 1월 5일, 20억 달러의 정부채권(30년 만기, US TB + 225bp)을 성공적으로 발행한 것으로 알려짐.

[외채상환능력]

□ 외채구조는 전반적으로 악화

- 2009년 총외채잔액은 해외차입 수요가 줄어들면서 전년과 비슷한 수준(2,756억 달러)을 유지한 것으로 추정되며,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2009년 말 기준 42.5%로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공적채무(국내외 포함)는 2008년 말 2,515억 달러(GDP 대비 40%), 2009년 말 2,931억 달러(46%)를 기록하였으며 GDP 대비 공적채무가 2010년에는 50%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다만, IMF 차관 상환 등으로 외채 비중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터키 정부의 재정수지 적자 누증, 국영기업 자산매각 부진 등으로 대내채무 비중은 낮아지지 않을 것으로 분석됨.

- 한편, 외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DSR)은 2008년 30.1%, 2009년의 28.3%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주요 수출시장인 유로존의 경기 침체로 수출이 감소하며 당분간 DSR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III. 정치 · 사회동향

1. 정치 및 국제관계

[정치 안정]

□ 정부여당은 2002년 이후 비교적 안정적인 국정운영

- 이슬람계 정의개발당(AKP)은 과거 복지당(Welfare Party)에서 활동하였던 자유우익 노선의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에 의해 2001년 8월에 창당되었으며, 2002년 11월 조기총선에서 34%의 득표로 550석 재적의원 중 363석을 차지하면서 승리함. AKP는 2007년 7월 총선, 2009년 3월 지방선거에도 승리를 거두어 비교적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슬람정책을 고집하지 않고 친서구화(EU) 정책을 추진함.

□ 2007년 이후 주요 선거에서 **AKP**가 승리하였으나 지지율은 하락

- 2007년 7월 22일 조기총선에서 AKP는 47%의 득표율로 전체 550석의 과반수를 초과하는 340석을 차지하여 재집권에 성공함.
- 2009년 3월 29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도 AKP는 39%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승리하였으나 2004년 지방선거에서의 42%, 2007년 총선에서의 47%와 비교시 지지율은 크게 하락하였음. 반면, 야당인 공화당(CHP)과 국가행동당(MHP)은 각각 23%, 16%의 득표율을 차지하며 상대적으로 선전하였음.

- 2009년 지방선거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에르도안 총리는 지지율 하락에 대해 공식적으로 실망감을 표시하였으며, 향후 안정적인 경제정책 운용으로 만회하겠다는 입장이나, 2010년 초 여론조사에 의하면 집권여당에 대한 지지율은 32%로 낮아진 상태임.

□ 2009년 말 이후 집권여당과 군부간 갈등 심화

- 2009년 말 군부 및 검찰간부 등의 쿠데타 기도 혐의로 2010년 2월에 군간부를 포함한 50여명이 체포되면서 친 이슬람계인 집권여당(AKP)과 검찰 및 군부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군부, 검찰 등의 쿠데타 시도는 집권여당의 여러 차례에 걸친 개헌(집권여당의 정부기관 통제 강화 등) 추진으로 터키를 친 이슬람 국가로 만들려는 시도에 반발한 것으로서 2008년 초 AKP의 해산(동년 7월 부결)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한 것에 대한 집권여당의 보복 조치로 분석됨.
- 현 정부 전복의 의도를 가진 민족주의자(Ergenekon)와 집권여당간의 갈등관계가 지속됨에 따라 터키 정치안정성이 다소 우려되며, 2011년 7월에 예정된 차기 총선에서 집권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여부가 주요 정치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국제관계]

□ 친서방, 친아랍의 균형외교 지향

- 이슬람 국가중 유일한 NATO 회원국인 터키는 유럽, 중동, 아시아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중요성을 바탕으로 서방 및 중동 국가들과의 조정자 역할을 자임하며 친서방, 친아랍 균형외교를 지향함.
- 미국과의 우호관계는 1947년 3월 터키가 트루만 독트린을 지지함으로써 본격화되어 1980년 미국과 국방경제협력협정(DECA)을 체결한 이후 1991년 진보된 협력관계를 거쳐 1999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함.
-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은 터키를 활용하여 중동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있으나 2010년 3월, 미하원이 1915~18년 터키의 아르메니아인 학살사건을 인종살상(genocide)으로 규정하면서 양국간 외교관계는 일시 악화됨.

- 터키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천연가스 및 석유 자원개발 분야에서도 미국과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동(이란,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및 러시아와 구소연방 국가와도 비교적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사이프러스 문제는 여전히 담보 상태

- 전통적으로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리스와도 최근 해빙무드가 조성되고 있으나 사이프러스 문제는 그리스와의 관계 정상화에 여전히 걸림돌로 남아 있음. 사이프러스 문제해결을 위한 터키계 및 그리스계 주민간 협상은 물론 UN 등 국제사회의 중재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정부통합에 관한 양측의 합의도출에는 실패함.
- 2004년 5월에는 남부사이프러스가 단독으로 EU에 가입하였고, 동년 12월 EU 정상회의에서 EU는 남부 사이프러스를 정식국가로 승인함.

□ EU 가입협상에 대해 대외정책 역점

- 1999년 EU 집행위원회는 터키에 가입자격을 부여하였으며, 정치 경제적 기준(Copenhagen Criteria) 충족으로 2004년 12월 EU 이사회 결정에 따라 2005년 10월부터 EU 가입협상을 시작함.
- 터키는 사형제도, 국가안보법 및 군부의 의원선출권 폐지 등의 인권관련 법안 통과 등 성공적인 협상을 위해 EU가 요구하는 개혁조치를 단행하였으나, 2006년 12월 터키의 사이프러스발 선박 및 항공기 입항 금지를 주된 이유로 EU 가입협상 항목 중 상품 및 서비스의 역내 자유이동 등과 관련된 8개 항목에 대한 협상이 중단된 바 있음.
- EU는 터키 인권 부문이 일부 개선되었음을 인정하나, 언론·종교의 자유, 여권, 소수민족 및 노동자 권리, 군부에 대한 민간 통제 부문에서는 여전히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터키는 2015년 EU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사이프러스가 독립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터키의 EU 가입을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고 국민의 EU 가입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어 향후 EU 가입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됨.
- 터키의 EU 가입에 대해 영국, 스페인 및 이탈리아 등은 지지하고 있지만, 프랑스, 오스트리아 및 독일 등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 가스관 건설 관련, 터키는 유럽과 러시아의 입장을 모두 지지

- 나부코(Nabucco) 가스관 프로젝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거치지 않고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직접 연결하는 가스관이며, 터키,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오스트리아가 참여하고 있음. 이를 통해 러시아에 대한 가스의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는 유럽과 미국의 지지를 받고 있음.
- 이에 대응하여 러시아(가즈프롬)와 이탈리아(Eni)는 사우스 스트림(South Stream) 가스관 프로젝트를 진행 중임. 터키와 우크라이나를 우회하는 가스관 건설(불가리아를 기점으로 그리스-이탈리아 연결 사업과 세르비아-헝가리-오스트리아-슬로베니아-이탈리아 연결 사업)을 통해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유럽시장을 더 확고히 장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터키는 나부코 가스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나, 유럽의 암묵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우스 스트림 가스관이 자국의 영해인 흑해를 통과하는 것을 러시아와 공식적으로 합의(2009년 8월)함에 따라 유럽과 러시아의 입장을 모두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2009년 이후에는 유럽 에너지 공급망의 중심국가가 되려는 터키의 구상과 터키를 경유하여 유럽에 공급하는 에너지 공급망을 다양화하려는 러시아의 입장이 맞아 떨어지면서 양국간 원유 및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 분야 협력증진을 모색하고 있음.

2. 사회 및 소요사태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쿠르드족에 대한 평화적인 해결책 모색 노력

- 2005년 2월, 이라크총선에서 쿠르드족이 27%를 득표해 주요 정치세력으로 부상함에 따라 세계 쿠르드족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는 터키 남동부 지역에서 쿠르드족 분리 운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잠재되어 왔음.
- 2006년 9월 쿠르드족 분리주의자들의 폭탄 테러, 2007년 9월 Sirnak 지방에서의 터키 정부와 쿠르드족간의 무력충돌, 2007년 12월 터키 무장군인의 쿠르드족 반군기지 공습, 2008년 2월 터키 지상군의 이라크 지역 침입 등의 충돌사태가 발행하였으며, 터키 정부는 쿠르드족 반군, 이라크 등과의 평화적인 협상에 적극 대처하고 있음.

- 특히, 터키의 쿠르드족 반군에 대한 군사적인 대응 등이 EU 가입의 걸림돌이 됨에 따라 터키 정부는 쿠르드족 문제에 대한 평화적인 해결책을 다방면으로 모색하여 왔음. 2009년 7월 베시르 아탈레이(Besir Atalay) 내무장관은 쿠르드족 문제에 대한 민주적인 해결책 도입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였으며, 동년 8월 에르도안 총리는 쿠르드민주사회당(DTP) 총재 아멧 투르크(Ahmet Turk)와의 이례적인 회동을 통해 쿠르드족과 관련된 최근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한 바 있음.
- 2009년 12월 터키 헌법재판소가 쿠르드노동자당(PKK) 반군 연계혐의로 DTP에 대한 해산을 결정함에 따라 터키 전역에서 폭력시위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사회 안정성을 저해하는 불안 요소로 잠재하고 있음.

IV. 국제신인도

1.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 OECD : 5등급(2004. 1) → 4등급(2008. 1)
- S&P : BB-(2004. 8) → BB(2010. 2)
- Moody's : Ba3(2005. 12) → Ba2(2010. 1)
- Fitch : BB-(2005. 1) → BB+(2009. 12)
- ICRG : 105/140(2009. 9) → 100/140(2010. 1)
- II : 67/186(2009. 9) → 59/186(2010. 3)
- Euromoney : 70/177(2008. 9) → 67/178(2009. 9)

2.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수은 : 최고 부보율 적용
- 영국 ECGD : 최고 부보율 적용
- 독일 Hermes : 단기 인수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3. 외채상환태도

□ IMF 대기성차관 수혜자금의 상환 지속

- 터키는 1979년 및 1982년 외채 리스케줄링 경험이 있으며, 만성적인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로 인해 잦은 유동성 위기를 경험하며 1984~2005년간 IMF로부터 총 520억 달러(승인기준) 규모의 구제금융을 지원 받았음. 2010년 3월 기준으로 터키의 IMF 대기성차관 잔액(상환부담분)이 80억 달러 상당이고, 따라서 터키 정부는 IMF의 사후모니터링을 받고 있는 상태임.

□ OECD 회원국의 ECA에 대한 연체실적 미미

- 2009년 11월말 기준 OECD 회원국의 ECA(Export Credit Agency) 인수 승인 잔액은 단기 23억 달러, 중장기 201억 달러로 총 224억 달러이며 이중 연체금액은 1,920만 달러로 전체의 0.09%에 그쳐 공적 수출신용에 대한 연체금액은 거의 없음.
- OECD CRAM(Country Risk Assessment Model)의 ECA 거래실적에 대한 모델등급은 0등급으로서 최상위 수준임.

4. 우리나라와의 관계

<표 3>

한 · 터키 교역규모

단위: 천달러

	2007	2008	2009	주요품목
수 출	4,087,436	3,772,570	2,660,688	자동차(부품), 산업용 전자제품
수 입	281,570	361,913	434,435	광물성 연료, 섬유제품, 농산물

* 자료: KOTIS, 한국무역통계

□ 2008년 이후 양국간 교역규모 감소

-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경기 침체의 여파가 지속되어 양국간 교역규모가 감소하였는데, 2007~09년 양국간 교역규모는 2007년 43.7억 달러(우리나라의 대 터키 수출 40.9억 달러), 2008년 41.4억 달러(수출 37.7억 달러), 2009년 31.0억 달러(수출 26.6억 달러)로 감소함.

- 2007~09년 중 터키는 우리나라의 25대 수출국(2007)에서 32대 수출국(2009)으로 하락하였고, 우리나라의 대 터키 무역수지 흑자규모도 축소되어 동 기간 중 대 터키 무역수지 흑자폭이 2007년 38.1억 달러에서 2009년 22.3억 달러로 축소되었으나 무역불균형 현상은 지속됨.

□ 대 터키 직접투자는 2009년에 다시 급증

- 우리나라의 대 터키 직접투자는 2007년 연중 1억 달러를 상회하면서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2008년 하반기에 일시적인 투자위축 현상이 있었으나 2009년에는 2억 달러를 상회하는 투자실적을 기록함.
- 대 터키 직접투자(투자금액 기준)는 2006년 1,590만 달러에서 2007년 1.1억 달러로 급증한 데 이어 2008년 0.7억 달러, 2009년에는 2.1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2009년 말 누계기준으로는 4.1억 달러를 기록함.

□ 한-터키 FTA 금년 4월 중 협상 개시 예정

- 한-EU FTA 발효가 임박함에 따라 EU와 관세동맹을 체결한 터키와의 FTA 체결을 추진하게 됨.
- 터키가 기존에 체결한 FTA의 대다수가 상품 분야이고 우리나라도 상품 분야에서의 체결을 우선 목표로 하여 금년 4월부터 양국간 본격 협상에 들어가 금년 내 동 협상이 체결될 예정임.

V. 종합의견

- 2008년 하반기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2009년 1분기에는 1945년 이후 최저치인 전년동기 대비 -14.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경기침체가 심화되었음. 그러나 동년 4분기부터 경제가 호전되면서 2010년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기가 회복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터키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시 외환 및 금융시장이 불안하였던 대표적 신흥투자시장이었으나 터키 정부의 효과적인 경제정책 시행 등으로 2008년

이후의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을 잘 극복한 국가로 평가되며, 경제상황 개선을 위한 중기경제계획을 시의 적절히 추진하고 있음. 또한, 국제적인 신용도평가 기관들도 터키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을 2009년 말 이후 상향 조정하는 등 터키의 국제신인도도 점진적으로 개선 추세에 있음.

- 다만, 정치사회적으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는데, 터키 정부는 2015년 EU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사이프러스 문제 등으로 EU 가입이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2009년 말 이후에는 집권여당과 군부 등 민족주의자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2010년 7월 총선 이전에는 정치상황이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부실장 조양현(☎02-3779-6663)

E-mail : yhjo@koreaexim.go.kr